

‘솔렌시스’ 독일증시 상장한다

연말까지 1조2천억원 특수목적법인 설립키로

터치센서 패널 제조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광주지역 업체 솔렌시스(주)가 해외증시에 상장한다.

광주시는 22일 정전용량방식의 터치센서 패널제조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렌시스(대표이사 우관제)가 지난 3월 대규모 해외수출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최근 해외 공동투자자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해외증시 직상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솔렌시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해외기업설명회(IR)에서 세계 유수의 기관투자자로부터 세계

적인 터치패널 전문회사로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투자유치와 함께 올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직상장을 추진하게 됐다.

솔렌시스는 또, 캐나다 투자펀드 및 EU 투자 사모펀드로 구성된 해외투자기관으로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00억원 규모의 1차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해외투자기관과 솔렌시스는 올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해외법인 형태)를 설립키로 했다.

이 특수목적 회사의 총 투자자치는 1조

2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솔렌시스는 이번에 600억원 상당의 1차 해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제2공장과 3공장 등을 순조롭게 증설·확장할 수 있게 됐고, 2013년 1조원대의 매출목표 달성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

솔렌시스 우관제 대표이사는 “대규모 해외투자 확보로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해외 고객사들과 공급처에 생산 설비 증설로 안정적인 제품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만년 2위 OB맥주 ‘대약진’

출고량 20% 늘어...점유율 1위 하이트 6.8%차 추격

국내 술시장의 1위 경쟁이 뜨거워 질 전망이다. ‘만년 2위’에 머물렀던 OB맥주가 올해들어 약진하면서 1위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4년 이래 맥주 시장에서 17년간 만년 2인자였던 OB맥주가 올해 1분기 약진을 하며 1위인 하이트맥주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올해 1분기 양사의 출고량(면세제외)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하이트맥주가 53.4%, OB맥주가 46.6%로 격차는 6.8%포인트로 좁혀졌다. 지난해 1분기 시장점유율 차이가 15.2%포인트였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하이트맥주는 올해 1분기 출고량이 전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OB맥주는 무려 20.1% 늘었다.

이들 맥주 1.2위 회사의 연간 점유율 차이는 2009년 15.5%포인트, 지난해 11.6%포인트로 매년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들 두고 업계에서는 OB맥주가 올해 상반기 매출을 앞두고 두고 볼만큼 울리러

고 출고량을 무리하게 늘린 것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OB맥주의 약진이었던 지방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분기 상반기별 맥주 점유율도 하이트가 40.9%, 카스헤르리가 39.6%로 1.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들의 지난해 전체 점유율 차이는 7.8%포인트였다.

카스라이프·카스레드 등 ‘카스 계열’ 점유율(2.3%)까지 합하면 카스가 하이트를 1.0%포인트 앞지른다.

카스는 올해 1·3월, 하이트는 2월 점유율에서 서로 앞서 달마다 1%포인트 격차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점유율이 상승세를 타며 10%에 육박한 맥스에 회의를 걸고 있고, OB맥주는 3월 말 출시한 골든라거의 판매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특히 하이트맥주가 4월부터 진로와 영업망을 통합한 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자동차·화학·IT 실적 개선

7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인해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외국인 매도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현상과 3~4월 글로벌 증시대비 상승률이 높았던 국내증시에 대한 차이실현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취약한 수급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물이 출회될 경우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멘텀이 약화되며 심리가 위축된 주식시장은 지난주 5거래일 동안 일 평균 변동폭은 30포인트에 달했다. 단기간 내에 흐름을 완전히 돌려놓을 만한 모멘텀도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는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경제지표들의 부진과 채무한도 수준에 도달한 정부부채, 2차 양적완화정책(QE2) 등 시점이 맞물리며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 및 기업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미국경제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대지진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경우 소비와 고용 중심의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의 모멘텀 약화 역시 급격한 경기 하락이러기보다는 경기감속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QE2 종료 이후에도 미국이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을 통해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내증시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축소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진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경기 모멘텀에 대한 신뢰회복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130포인트에 가까운 조정을 거치며 가격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내었다는 점과 이미 지난 2주 동안 5조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져나가는 국면에 진입해 나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분할 매수를 통해 가격부담을 덜어낸 주도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판매 호조를 보이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주요 상품가격들이 안정을 찾아가며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화학, 탄어라운드가 예상되는 IT, 그리고 내수업종 대표주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조선업종은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발주로 비조선 부분의 수주 증가세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이용섭 국회의원(전 국제청장)이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초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공직자 청렴해야 사회 바로 선다”

광주국세청, 이용섭 국회의원 초청 특강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형균 청장을 비롯한 직원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전 국제청장)을 초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이용섭 의원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공직자가 청렴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며 “정책과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 국제청·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 공직자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등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며 “공직자는 명예와 가치가 가장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고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

전남 일자리센터 실업해소 ‘숨통’

운영 4개월만에 128개 업체 324명 알선

전남도의 일자리종합센터(http://job.jeonnam.go.kr)가 지역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문을 연 일자리종합센터는 현재까지 도내 투자유치 기업, 농산가공식품회사 등 128개 업체를 대상으로 600여명의 구직자를 알선, 324명이 취업했다.

예를 들면 목포의 콜서비스 업체인 H&Tech와 영암 반도체회사인 ㈜아즈텍 등 30개 투자유치 기업이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108명을 채용했고 여수 축산물가공

업체인 유진과 함평 내비광 버섯이랑 영농조합법인 등 33곳의 농수산물가공식품회사도 100여명을 뽑았다.

전남도는 일자리센터가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자 앞으로 도내 모든 기업의 구인정보를 일자리센터의 정보망에 등록해 구직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일자리 정보를 도내 대학과 특성화 고교, 남도학숙, 시군·읍·동과 마을이장까지 수시로 제공, 구인·구직정보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내달 1일까지 경력사원 모집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1일까지 2011년 상반기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채용 분야는 교육, IT, 인사, 마케팅, CL 사업(Car life·차량과 IT 융합 전략 등 부가 서비스) 등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서 접수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일 오후 3시까지 기아차 온라인 채용 사이트(http://recruit.kia.co.kr)로 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신체검사이며, 서류전형 결과는 6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통계청, 내달 24일까지 ‘경제총조사’

국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규모와 고용인력, 경영실태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제총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

통계청은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2011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기존에 5년에 한 차례씩 실시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총조사를 통합한 것으로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일

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과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체(330만개)가 조사대상이다.

기존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운수·건설업과 농림어업 법인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됐으며 국방관련시설, 자가생산·소비활동과 외국대사관 같은 국제·외국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을 저렴하게 만나볼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점심 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 중식사
광주교육과학연구원
← 두암지구 제2순환도로 화순 →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정리 맥서스 월화수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원 문화회관 ↑ 시청
지하철 호대역 3.4면출구 ↓ 시내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_062-385-8080~1